

주도성과 친화성 특성에 따른 병리적 자기애의 암묵적·명시적 자존감*

전 유 곽	임 종 민	장 문 선 [†]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졸업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수료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인 자기애 웅대성 집단과 자기애 취약성 집단을 대상으로 실패 경험에서 암묵적 및 명시적 자존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아울러 자기애 웅대성이 높은 사람은 이상적인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따라 주도성 자기애와 친화성 자기애로 나뉠 것이라는 주도성-친화성 모델에 따라, 병리적 자기애와 주도성(Agency) 및 친화성(Communion)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대학생 303명에게 병리적 자기애 척도(PNI)를 실시한 후, 자기애 웅대성 집단(16명)과 자기애 취약성 집단(15명), 통제 집단(17명)을 선정하였다.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주도성과 친화성 각각의 단어로 구성된 암묵적 연합 검사(주도성 IAT, 친화성 IAT)를 제작했으며 명시적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 자존감 척도(RSES)를 사용하였다. RSES와 IAT를 실시한 후 해결 불가능한 애너그램 과제를 제시하여 실패 경험을 유도하였고 RSES와 IAT를 반복 측정하여 자존감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에 따라 암묵적 자존감 변화의 방향이 달랐다. 특히 주도성 IAT에서는 자기애 웅대성 집단이 유의한 증가를 보인 반면, 친화성 IAT에서는 자기애 취약성 집단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병리적 자기애 집단의 자존감이 불안정하며, 표현형에 따라 실패 경험에 대처하는 기제가 다름을 보여주는 한편, 병리적 자기애가 주도성 및 친화성과 연관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주도성, 친화성, 병리적 자기애, 암묵적 자존감, 명시적 자존감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장문선 /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Tel : 053-950-5247, E-mail : moonsun@knu.ac.kr

Copyright ©2022,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자기에성 성격장애는 웅대하고 과장된 자기지와 오만한 태도 등을 특징으로 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병리적인 자기에를 지닌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에 취약하고 자신의 열등함이나 나약함을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Salmivalli, 2001). 이들은 실패나 좌절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마주하게 되면 긍정적인 자기상에 대한 위협인 자기에적 손상(Narcissistic Injury)을 입고 부적응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한다. Pincus와 Lukowitsky(2010)는 병리적 자기에를 자기에적 손상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표현형(Phenotype)인 자기에 웅대성(Narcissistic Grandiosity)과 자기에 취약성(Narcissistic Vulnerability)으로 구분하였다. 표현형에 따른 기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에 취약성이 높은 사람은 이상적인 자기표현이 불가능하거나 칭찬이 충분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자기에적 위협을 다루기 위해 사회적 상황을 회피한다(Akhtar, 2003; Dickinson & Pincus, 2003; Ronningstam, 2005). 대조적으로, 자기에 웅대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표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억압하고 실질적인 성취나 능력이 없음에도 특권의식과 과장된 자기상을 유지하고자 하며 자신의 웅대함에 대해 공상하는 경향이 있다(Pincus et al., 2009). 이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혹은 자기상이 충족되지 않는 외부 경험을 하게 되면 강렬하게 분노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Bushman & Baumeister, 1998). 또, 외부 경험과 불일치하는 웅대한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해 부적응적인 자기고양 전략을 사용한다(양진원, 권석만, 2016). 이렇듯 자기에 취약성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경험에 대해 회피 전략을 사용하지만, 자기에 웅대성이 높은 사람은 이상적인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견

고하고 복잡한 인지 전략을 사용한다.

전통적으로 자기에적 성격 특성을 지닌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Cain, Pincus, & Ansel, 2008; Campbell & Green, 2008). 그러나 Weiss와 Miller(2018)는 병리적 자기에를 지닌 사람이 외부 환경에서 좌절을 경험하면 분노나 수치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표현형에 따라 자기에적 손상에 대처하는 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자존감 수준도 다를 것으로 보았다. 경험적 연구들은 자기에 웅대성 집단이 자존감과 정적 상관관을 보이는 반면, 자기에 취약성 집단은 자존감과 부적 상관관을 지닌다는 결과를 반복 검증하였다(Pincus et al., 2009; Tritt, Ryder, Ring, & Pincus, 2010).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존감은 정신건강의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된다(김경아, 최훈석, 2014). 그러나 고전적 정신 역동적 관점에서 시작된 자기에의 가장된 모델(Mask Model of Narcissism)(Freud, 1955; Kernberg, 1986; Kohut, 1966)에 따르면, 자기에적 성격 특성을 지닌 사람은 표면 수준에서는 웅대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는 열등감에 시달린다. 따라서 자기에 웅대성이 높은 사람에게서 관찰되는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해석하기보다는 내면의 진정한 자기개념을 측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Baumeister, Smart, & Boden, 1996; Bushman & Baumeister, 1998; Lupien, Seery, & Almonte, 2010). 개인 내면의 취약한 자기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Greenwald, McGhee와 Schwartz(1998)가 개발한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를 활용하여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

였다(홍초롱, 권석만, 2016; Campbell, Bosson, Goheen, Lakey, & Kernis, 2007; Fatfouta & Schröder-Abé, 2018a). IAT 연구 결과, 자기애의 가장된 모델을 지지하는 연구도 일부 존재했지만 대체로 연구 결과가 혼재하였다(Bosson et al., 2008). Ronningstam(2005)과 Westen(1990)은 병리적 자기애의 핵심적인 특징을 자존감 불안정성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연구 결과가 혼재하는 원인을 자존감 불안정성에서 찾고 있다. Pincus 등(2009)은 병리적 자기애가 긍정적 자기상에 대한 위협을 경험할 때 부적절한 자기조절 전략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자기조절이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방략을 말한다(Morf & Rhodewalt, 2001). Pincus 등(2009)은 이를 바탕으로 병리적 자기애에서의 자기조절을 자기, 정서,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자기조절 과정을 통해 적절하고 긍정적인 자기상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병리적 자기애를 지닌 사람은 자기애적 상처를 입게 되면 웅대한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조절 전략으로 자존감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불안정한 것으로 여겨진다(Rhodewalt, Madrian, & Cheney, 1998; Zeigler-Hill, Myers, & Clark, 2010). 자존감 불안정성이란 자기가치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동하는 경향성을 말한다(Kernis, Lakey, & Heppner, 2008). 불안정한 자존감을 지닌 개인은 자기 가치에 대한 느낌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한다(최정인, 이훈진, 이준득, 2012). 따라서 병리적 자기애 집단에서 특정한 시기에 측정된 자존감 수준은 그들의 자기가치감을 대표할 수 없으며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상

황에 따라 자존감 수준이 다르게 측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자기애와 암묵적 자존감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원인을 IAT 제작 과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IAT는 ‘자기(Self)’와 ‘평가되는 차원’ 간의 인지 연합의 강도를 통해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는 도구다. 따라서 평가 차원으로 선정된 단어의 내용이 연합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Campbell 등(2007)은 자기애 특성을 지닌 사람이 모든 차원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IAT를 구성하는 단어들로 자기애와 상관이 높은 주도성(Agency) 개념이나 상대적으로 상관이 낮은 친화성(Communion)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단어를 선별하였고, 그 결과 자기애에서의 암묵적 자존감이 정확하게 평가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Campbell et al., 2007).

주도성과 친화성은 Bakan(1966)에 의해 제시된 개념이다. 주도성은 독립적인 개체로서 경험하는 탁월함을 의미하며, 개인적 성취나 능력을 강조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행동, 혹은 주변 환경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드러날 수 있다. 친화성은 타인 혹은 공동체와의 유대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친화적인 특성은 집단 및 사회와의 관계성을 중시하고 타인과 친근한 관계를 맺거나 협력하면서 동화되려는 노력으로 표현된다(김윤영, 이예은, 주민주, 박유빈, 박선웅, 2016).

Campbell, Rudich와 Sedikides(2002)은 자기애 웅대성이 높은 사람들이 인지기능이나 유능함, 사회적 영향력 등 주도적인 특성에 국한하여 이상적인 자기개념을 지니는 반면, 대인관계적 따뜻함, 친애, 도덕성 등의 친화적인 특

성에서는 이상적이고 웅대한 자기 관점을 지니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Grijalva와 Zhang(2016)이 자기에적 특성과 자기고양 경향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자기에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친화적 자질을 중요하지 않은 특성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mpbell, Brunell과 Finkel(2006)이 제안한 자기에에 대한 주도성 모델(Agency Model of Narcissism)에 따르면, 자기에 웅대성이 높은 사람은 주도적인 특징에 대한 이상적인 자기 개념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존감의 수준을 조절한다. 이 이론에서는 자기에 웅대성이 높은 사람이 주도적 특성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이와 모순되는 부정적인 평가나 실패를 경험할 때 내적으로는 분노하고 외적으로는 자기상과 불일치하는 상황을 외부 귀인하는 한편(Farwell & Wohlwend-Lloyd, 1998), 자존감 수준을 조절하여 왜곡된 자아상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Pincus와 Lukowitsky(2010)는 자기에 웅대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웅대하고 취약한 자기로 이끄는 방어적 자기 조절 전략을 기술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자기에 웅대성 집단이 이상적인 자기상과 불일치하는 사건을 견디기 어려워하며 사소한 자극에도 자기에적 손상을 입기 쉽다고 보았다.

자기에에 대한 주도성 모델은 자기에적 성격 특성으로 여겨지는 과도하게 팽창된 자기 관점, 오만함, 특권의식 등과도 부합하며, 오랫동안 자기에적 특성에 대한 고전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져 왔다(Gebauer & Sedikides, 2018). 그러나 Fatfouta와 Schröder-Abé(2018b)이 주도성 모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Campbell 등(2007)의 상관연구를 반복검증한 결과, 자기에적 특성과 주도적 특징 간의 상

관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자기에 웅대성이 높은 사람이 친화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어(Gebauer, Sedikides, Verplanken, & Maio, 2012),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Gebauer, Paulhus와 Neberich(2013)는 자기에와 친화성의 관계가 이제서야 발견된 이유를 자기에적 성격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Raskin & Terry, 1988)에서 찾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기에와 암묵적 및 명시적 자존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자기에 측정 도구로써 NPI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NPI는 자기 지각의 ‘Big 2’로 불리는 주도성과 친화성 중 주도적인 특성에 편향되어 있어서 친화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Cain et al., 2008).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Gebauer 등(2012)은 자기에의 주도성-친화성 모델(Agency-Communion Model of Narcissism)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자기에 웅대성이 높은 사람이 주도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핵심적 자기 동기를 지니며, 이를 충족하는 방식에 따라 주도적인 자기에와 친화적인 자기에로 나뉜다고 보았다. 이들에 따르면 개인의 성격 구조는 ‘핵심적인 자기 동기’와 ‘이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나뉘며 위계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상위 수준 위계인 핵심적인 자기 동기는 원형구조에서 나타나는 성격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하위 수준의 위계는 상위 위계의 성격 특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보았다. 자기에의 주도성-친화성 모델에서는 이러한 성격 구조를 바탕으로, 자기에 웅대성 특성이 높은 사람은 주도성에 대한 핵심 자기 동기가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는 방식에 따라서 주도적인 자기에(Agentic Narcissism)와 친화적인 자기

애(Communal Narcissism)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주도적인 자기애에서 핵심 동기는 주도적인 측면으로 구성되며, 주도적인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하려고 시도한다. 친화적인 자기애의 핵심 동기 역시 주도적인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친화적인 방식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주도적인 자기애 집단과 구분된다.

자기애 응대성을 지닌 사람의 핵심 자기 동기가 응대성, 자부심, 권력 등 주도적인 측면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고려한다면 친화적인 자기애라는 개념은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 Gebauer 등(2012)은 친화적인 자기애에서의 친화성이란 개인이 지닌 성격 특성이 아니라 내적 동기를 충족하는 방식임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친화적 자기애 특징을 지닌 사람은 ‘그들이 아는 사람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기 위해 노력한다. 실제로 Gebauer와 Sedikides(2018)는 친화적인 측면이 높은 자기애 집단을 확인하였는데 친화적인 특성에 대해 과도하게 팽창된 자기 지각을 하고 있으며 자기 고양을 통해 전반적인 자기 평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리적 자기애의 또 다른 표현형인 자기애 취약성은 주도적인 핵심 동기 자체가 없으며 주도성 자기애나 친화성 자기애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 Miller, 2011; Miller & Campbell, 2008). 자기애 취약성이 높은 사람들은 좌절과 같은 외부 경험으로 인해 이상적인 자기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자기애 응대성이 높은 사람들보다 수치심을 강하게 경험하며(양진원, 권석만, 2016)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khtar, 2003; Dickinson & Pincus, 2003; Ronningstam,

200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기애 취약성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하면 수치심을 경험하면서 상황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며 결과적으로 자존감 수준은 저하될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들의 회피 전략은 자기애 응대성이 높은 사람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기애 응대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표상의 부정적 측면을 억압하고 특별한 권리를 지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 대인관계에서는 착취적이고 공감미 부족하며 공격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반면, 자기애 취약성이 높은 사람은 무력함, 공허감, 낮은 자존감, 수치심 등을 의식적인 수준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묘사된다(Akhtar, 2003). 선행 연구에서는 실제로 자기애 취약성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애적 상처를 입게 되면 대인관계적 상황에서 사회적 회피를 보이는 것이 주된 특징임을 밝혔다(양진원, 권석만, 2016). 따라서 자기애 취약성이 높은 사람은 이상적인 자기표현이 불가능할 때, 혹은 인정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기애적 상처를 다루기 위한 방략으로 사회적 상황의 회피를 선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병리적 자기애에서 나타나는 자존감 불안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내부에서 작동하는 심리적 과정인 자기조절의 기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Ronningstam, 2010) 그러나 병리적 자기애에서 자기애적 손상에 따른 자존감 불안정성이나 자기조절 전략이라는 개념을 암묵적 차원에서 다룬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 자기애 집단이 실패 경험을 하게 되면 평소 경험하는 자존감 수준이 변화하는지, 그리고 표현형에 따라 변화 방향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주도성-친화성 모델에서

는 자기에 웅대성이 높은 사람은 주도성 자기애와 친화성 자기애로 나뉠 수 있으며, 내적 동기와 이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두 집단을 구분하였다. 병리적인 자기애를 지닌 사람일수록 자신의 인지 처리 과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결합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Dimaggio et al., 2002), 자기조절 과정이 의도성을 가진 상위 인지 차원에서 지각되지 않고 암묵적 차원에서 민감하게 탐지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패 경험에 따른 암묵적 자존감의 불안정성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며, 특히 주도성과 친화성 개념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 자기애 집단을 대상으로 자기조절 전략으로서의 자존감 불안정성을 확인하고, 표현형에 따른 기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기에 취약성은 주도성·친화성 특징과 관련이 없으며 자기 개념이 취약한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쉽게 좌절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자기에 웅대성이 높은 사람이 이상적인 자기개념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복잡한 인지 전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자기에 웅대성 집단에서는 실패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조절 전략으로서 암묵적 자존감 수준을 조절하여 이상적인 자기상을 지속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였다. 자기에의 주도성-친화성 모델은 성격 구조가 핵심적인 자기 동기와 이를 충족하는 수단이라는 위계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충족 방식에 따라 친화적 자기애와 주도적 자기애를 구분하였다. Gebauer와 Sedikides(2018)에서 친화적인 자기애 집단이 실패함을 확인하였지만 위계적 성격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묵적 개념을 측정하지는 않았고, 성격에 따른 위계적 구조를 심

리측정적 속성으로서 명료하게 구분한 연구나 자기애와 친화성 개념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Fatfouta와 Schröder-Abé (2018a)는 친화적인 자기애를 대상으로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한 결과, 자기보고식 응답에서는 친화적인 특성을 높게 보고하지만 IAT 측정치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음을 보였다. 그에 따르면 친화적인 자기애 집단이 내적으로 진정한 친화적 특성을 지니기보다는 타인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친화적인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도성을 친화적 자기애의 핵심 속성으로 보았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친화적 자기애가 존재하지만 이들 역시 주도성, 즉 자신에 대한 과대감을 핵심적인 특성으로 지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충족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친화적인 자기애 집단 역시 암묵적 차원에서 주도적인 특성을 저평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IAT 측정 결과는 자기에 웅대성 집단에서 주도적인 속성을 반영할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자기에 취약성 집단은 실패를 경험하면 수치감을 포함한 부정 정서 경험이 증가하고 암묵적 자존은 저하될 것으로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에 취약성이 높은 사람들은 좌절 경험을 하게 되면 강한 수치감을 경험하면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khtar, 2003; Ronningstam, 2005). 선행 연구에서는 자기에 취약성 집단이 외부의 위협적인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적인 위협이 유의한 수행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밝혔다(Besser & Priel, 2010). Pincus와 Lukowitsky(2010)에 의해

제안된 자기애 표현형의 두 하위 유형은 명시적 자존감 수준이 다르며, 분노나 수치감 등 다양한 정서에 대한 상이한 기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own과 Brunell(2017)은 동일한 부정적 사건이나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에 따라 자존감 변동 양상이 상이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기애 취약성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하면 수치심을 느끼는 한편 상황을 회피하려 시도하고 암묵적 자존감 수준은 주도성이나 친화성 특성과 무관하게 기저선보다 저하될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해결 불가능한 과제를 제시하여 실패 경험을 유발하고 사전 시기와 사후 시기 각각에서 명시적 및 암묵적 자존감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았다. 아울러, 주도성과 친화성을 구분하여 IAT를 구성하고 각 특성에 따른 암묵적 자존감의 변화 수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가설로 우선, 명시적 자존감은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자기애 취약성 집단에서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두 번째로는 실패 경험 전후의 자존감 수준이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자기애의 주도성-친화성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애 웅대성 집단의 경우 주도성과 친화성을 모두 반영한 결과로 주도성 IAT가 사전 시기에 비해 사후 시기에 상승할 것으로 보았다. 친화성 IAT에서는 사후 시기에서 유의미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만약 상승 경향성이 나타난다면 이는 친화적인 자기애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반영한 결과로, 하위 위계 특성인 ‘충족 수단’을 반영한다는 한 가지 증거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친화성 특성에서는 주도성 자기애 집단과 친화적 특성을 수단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화적 자기애 집단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하더라도 주도적 특성만큼 두드러지는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자기애 취약성 집단의 경우 주도성, 친화성 특성과 무관하게 사전 시기에 비해 사후 시기의 암묵적 자존감 수준이 저하될 것으로 보았다. 통제 집단에서는 사전 시기에 암묵적 자존감 수준이 낮지 않으며 실패 경험을 유도한 뒤에도 유의미한 상승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는 지역소재 대학교의 학사 및 석사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참가자 모집은 1차 40명(남자 14명, 여자 26명, 평균 연령 22세), 2차 137명(남자 34명, 여자 103명, 평균 연령 20세), 3차 42명(남자 28명, 여자 14명, 평균 연령 21세)이고,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참가자는 74명(남자 30명, 여자 44명, 평균 연령 24세)이며, 석사 재학생은 10명(남자 4명, 여자 6명, 평균 연령 25세)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병리적 자기애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와 연구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양진원과 권석만(2016)은 PNI 점수를 기준으로 자기애 취약성 집단과 자기애 웅대성 집단 및 통제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전체 PNI 전체 점수를 토대로 상위 33%를 고 PNI 집단,

하위 33%를 저PNI집단(통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홍초롱과 권석만(2016)은 병리적 자기에 집단을 웅대성 및 취약성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 웅대성 요인과 취약성 요인 간 점수 차이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집단 구분 방법을 고려하여 전체 연구 참가자 303명을 대상으로 PNI 총점 하위 25%(PNI 총점 51점 이하)에서 20명을 무선표집하여 통제 집단을 구성하였다. 병리적 자기에 집단에서는 웅대성과 취약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Pincus et al., 2009) 웅대성 요인이나 취약성 요인 중 한 특성만이 두드러지는 집단을 구성하면서도 집단 내 표본 크기가 너무 작아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PNI 총점 상위 60%(PNI 총점 63점 이상)를 대상으로 하여, 하위 요인의 표준편차를 활용해 표본을 선정하였다. 1SD를 기준으로, 웅대성 요인이 기준 이상이면서 동시에 취약성 요인은 기준 이하인 참가자를 자기에 웅대성 집단으로 선정하였고(웅대성 요인 점수 46이상, 취약성 요인 점수 54점 이하), 취약성 요인이 기준 이상이면서 웅대성 요인이 기준 이하인 참가자는 자기에 취약성 집단으로 선정하였다(웅대성 요인 점수 44점 이하, 취약성 요인 점수 57점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참가자들을 각 집단별로 20명씩 무선표집하였다. 실험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 참가자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자기에 웅대성 집단 16명(남자 5명, 여자 11명), 자기에 취약성 집단 15명(남자 5명, 여자 10명), 통제 집단 17명(남자 6명, 여자 11)으로, 총 48명의 실험 참가자를 선정하였다.

측정도구

병리적 자기에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

병리적 자기에를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척도로 Pincus 등(2009)이 개발하고 양진원과 권석만(2016)이 번안 및 타당화 한 병리적 자기에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자기에 웅대성’과 ‘자기에 취약성’ 두 요인으로 나뉘며 총 5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내 번안 및 타당화를 하면서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타당화 연구에서 PNI 척도의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문항이 .92, ‘자기에 웅대성’ 요인이 .85, ‘자기에 취약성’ 요인이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문항이 .94, ‘자기에 웅대성’ 요인이 .89, ‘자기에 취약성’ 요인이 .95로 나타났다.

Rosenberg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전반적인 자존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호택과 이훈진(1995)이 번안 및 타당화 한 한국판 Rosenberg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10개의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9이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1로 나타났다.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ask: IAT)

암묵적 자존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Greenwald 등(1998)이 개발한 암묵적 연합 검사를 제작 및 실시하였다. IAT는 성격 특성 및 자존감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자신에 대한 단어’를 측정하고자 하는

태도와 관련된 단어와 연합시키는 반응 속도를 측정한다. IAT에서 참가자는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는 하나의 단어를 네 개의 범주(자기 관련 자극, 타인 관련 자극,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에 알맞게 분류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주도성과 친화성 특성에 따른 암묵적 자존감 수준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주도성 단어로만 구성된 IAT(주도성 IAT)와 친화성 단어로만 구성된 IAT(친화성 IAT)를 별개로 제작하였다.

IAT에서 사용된 단어는 국내 선행 연구에 사용된 단어를 참고하여(박승진, 최혜라, 이훈진, 2011, 홍초롱, 권석만, 2016) 자기 관련 자극(‘나’ 범주)으로 ‘나, 내가, 나를, 나의, 나는’을 사용하였고 타인 관련 자극(‘너’ 범주)으로 ‘너, 네가, 너를, 너의, 너는’을 사용하였다.

긍정적인 단어(‘좋은’ 범주)와 부정적인 단어(‘나쁜’ 범주)는 선행 연구와 관련 척도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Campbell 등(2007)에서 자기애와 암묵적 자존감 연구에서 IAT 제작에 사용한 주도성 영역의 단어는 ‘assertive, active, energetic, outspoken, dominant, enthusiastic, quiet, reserved, silent, withdrawn, submissive, inhibited’이며 친화성 영역의 단어는 ‘kind, friendly, generous, cooperative, pleasant, affectionate, mean, rude, stingy, quarrelsome, grouchy, cruel’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단어 그리고 두 특성과 관련된 척도(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PAQ, Extended Personality Attributes Questionnaire: EPAQ) 및 여러 연구에서 두 특성을 기술할 때 사용된 단어를 토대로 총 30개의 단어를 선정 및 번안하였다(김윤영 등, 2016; Fatfouta & Schröder-Abé, 2018a). 심리학과 대학원생 13명을 대상으로 선정된 30개

의 단어가 주도성과 친화성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내는지에 대한 예비 연구를 실시하여 20개의 단어를 최종 선정하였다.

30개의 단어는 4개의 범주(주도성-긍정 단어 8개, 주도성-부정 단어 8개, 친화성-긍정 단어 7개, 친화성-부정 단어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30개 단어의 순서를 무선화한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질문지는 단어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먼저 평정하고(5점 Likert 척도, 1점 매우 부정적이다, 2점 부정적이다, 3점 중립적이다, 4점 긍정적이다, 5점 매우 긍정적이다), 그 후에 주도성, 친화성 정도를 평정하도록(5점 Likert 척도, 1점 매우 주도적이다, 2점 주도적이다, 3점 중립적이다, 4점 친화적이다, 5점 매우 친화적이다) 구성하였다. 부정 단어와 주도성 단어 점수는 역채점하였다. 단어 특성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였고 범주별로 점수가 높은 상위 5개의 단어를 선정하였다. 주도성 특성에서 선정된 긍정 단어(‘좋은’ 범주)는 ‘확신에 찬, 우월한, 뛰어난, 유능한, 자신감 있는’이며, 부정 단어(‘나쁜’ 범주)는 ‘소극적인, 억압된, 무기력한, 게으른, 수동적인’이다. 친화성 특성에서는 긍정 단어(‘좋은’ 범주)로 ‘협조적인, 다정한, 애정어린, 자애로운, 온정적인’을, 부정 단어(‘나쁜’ 범주)로는 ‘불평불만의, 인색한, 잔인한, 무례한, 냉정한’을 최종 선정하였다.

IAT E-Prime software 2.0으로 제작하였다(Psychology Software Tools, Inc., 2012). 검은색 배경의 화면 중앙에 흰색의 18 font 크기로 표적 자극이 주어졌다. ‘나’, ‘너’, ‘좋은’, ‘나쁜’이라는 범주명이 녹색 글자로 화면 좌측과 우측 모서리에 제시되었다. 참가자는 15인치 모니터에 대략 50cm 떨어진 곳에 앉아 과제를 수행하였다. 각 시행 별 단어 자극은 참가자가 반응하기 전까지 계속 화면에 남아있으며

만약 단어를 잘못 분류할 경우 화면에 붉은 색상의 ‘x’가 400ms 동안 제시되었다.

IAT 프로그램은 Rudman, Greenwald와 McGhee(2001)의 설계를 따라 총 7블록(Block)으로 구성하였고 한 번의 IAT는 100회의 연습 시행과 80회의 본 시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블록은 시행 순서를 뜻하며 4번 블록과 7번 블록이 실제 측정 시행으로, 각 블록은 40시행으로 구성된다. 4번 블록과 7번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블록은 연습 시행이며 블록 별로 20시행이 제시된다. 표 1에서는 각 블록에서 제시되는 범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였다.

참가자는 실험자의 구두 설명 및 모니터 화면을 통해 두 개의 키를 사용하여 표적 단어를 좌측(A key)과 우측(L key)으로 올바르게 분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좌측과 우측 상단에 제시되는 범주는 블록마다 다르게 구성하였고 각 블록 내에서 제시되는 단어의 순서는 무선화하였다. 참가자들은 매 블록마다 화면의 좌측 상단과 우측 상단에 제시되는 범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안내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IAT를 활용한 반복측정 절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도성IAT와 친화성 IAT 각각을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하였다. 즉,

연합된 범주가 제시되는 순서에 따른 연습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두 번째 측정 시기에서 IAT 블록 내에서 제시되는 범주의 연합 순서(‘나+나쁜’ 대 ‘나 +좋은’)와 범주의 방향(좌우)이 바뀌도록 구성하였다. 아울러 사전 시행과 사후 시행에서 다른 버전으로 검사를 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사전 및 사후 각각의 측정 내에서 주도성 IAT와 친화성 IAT를 제시하는 순서에 따른 혼입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 순서를 역균형화 하였으며 참가자는 네 가지 버전에 무선적으로 할당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AT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Greenwald, Nosek과 Banaji(2003)가 제안한 향상된 알고리즘(Improved algorithm) 계산법을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계산 절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너+좋은’, ‘나+나쁜’ 범주 반응시간에서 ‘나+좋은’, ‘너+나쁜’ 범주 반응 시간을 뺀 값을 표준편차로 나눈 값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점숫값이 양수인 경우, ‘나+좋은, 너+나쁜’의 연합 시간이 ‘나+나쁜, 너+좋은’에 대한 연합 시간보다 반응시간이 짧음을 의미하여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산출된 점숫값이 음수라면 그 반대로 해석한다.

표 1. IAT의 각 블록 별 범주

	좌측 단어	우측 단어
블록 1	나	너
블록 2	좋은	나쁜
블록 3	나 + 좋은	너 + 나쁜
블록 4	나 + 좋은	너 + 나쁜
블록 5	나쁜	좋은
블록 6	나 + 나쁜	너 + 좋은
블록 7	나 + 나쁜	너 + 좋은

애너그램 과제(Anagram Task)

애너그램 과제는 주어진 단어의 철자를 모두 사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검사이다(예: rose의 철자를 재조합하여 eros라는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승진 등(2011)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한 단어인 rose, thing, silent, second를 활용하였다. rose와 thing은 상대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고 silent는 다소 까다로우며 마지막 문항인 second는 답이 없다. 한 문항 당 최고 4분

표 2. IAT 측정치 계산절차

단계	항상된 알고리즘
1	블록3, 블록4, 블록6, 블록7의 자료를 사용함
2	10,000ms가 넘는 trials 삭제함
3	10%이상의 trials에서 반응시간이 300ms이하라면 해당 참가자 데이터는 분석하지 않음
4	모든 trial을 사용함
5	2단계 이후 이상치를 제거하지 않음
6	정답 반응시간에 대하여 각 블록 별 평균을 계산함
7	블록3과 블록6에서의 모든 시행에 대하여 하나의 pooled SD를 계산함
8	블록4과 블록7에서의 모든 시행에 대하여 하나의 pooled SD를 계산함
9	모든 오답 반응시간에 대하여 각 블록 별 평균(5단계)+600ms로 대체함
10	(로그 변환한 기존 분석법과 달리) 변환하지 않음
11	각각 네 개의 블록별 평균을 구함
12	아래 두 블록 차에 따른 값을 구함 B6 - B3, B7 - B4
13	6단계에서 구한 associated pooled SD로 10단계의 각각의 차이값을 나누어 줌
14	11단계에서 산출한 두 개의 몫을 평균을 냄

이 주어지며, 도중에 포기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록 구성하였다. 참가자가 직선 위에 표시한 부분까지의 실제 길이를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시각적 비율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연구절차

실패 경험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각적 비율 척도를 활용해 참가자의 사전 사후 기분을 평가하였다. VAS에서 사용된 정서 요인으로는 김송이, 엄진섭, 노은여와 유성은(2013)이 개발 및 타당화 한 개별 정서척도(Discrete Emotions Scale: DES)에서 제시된 요인을 참고하였다. 최종적으로 기쁨, 성취감, 분노, 수치심 정서를 선정하였고 각 정서에 대하여 0과 100 사이의 범위를 가진 10cm의 직선 위에 ‘현재의 기분 상태’를 평가하도록

참가자는 실험실에 입실하여 연구 참여 동의를 작성하였고 실험 절차에 대한 안내를 들은 후 RSES, VAS를 작성하였다. 그 후 주도성 및 친화성 IAT를 실시하였으며 약 15분이 소요되었다. 이후 약 10분 동안 애너그램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명시적 자존감 변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RSES를 작성하였고, 조작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VAS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사전에 실시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주도성 및 친화성 단어로 각기 구성된

두 가지의 IAT를 반복 시행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IAT는 사전 IAT에 사용된 IAT와는 블록 별 연합 순서가 다르게 제시되었다. 실험 과정의 총 소요 시간은 약 45분이었다. 모든 측정이 종료된 후 참가자에게 연구의 의미와 실험적 절차에 대한 사후설명을 제공하였고 소정의 참가비를 지급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경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승인(IRB No. KNU-2019-0127)받은 후 실시되었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측정 변인 비교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 집단인 자기애 웅대성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PNI 측정치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통계적 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자기애 웅대성 집단 16명(남자 5명, 여자 11명), 자기애 취약성 집단 15명(남자 4명, 여자 10명), 통제 집단 17명(남자 6명, 여

자 11명)이며 교차 분석 결과 집단 간 성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chi^2(2, N = 48) = 0.06, ns$. 일원배치 변량분석 결과, 집단 간 연령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F(2, 45) = 1.03, ns$. 집단 구분이 적절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PNI 총점과 웅대성 및 취약성 하위 요인에 대한 일원배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PNI 총점과 웅대성 및 취약성 하위 요인에 대하여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각 $F(2, 45) = 195.38, p < .05, F(2, 45) = 130.15, p < .05, F(2, 45) = 105.31, p < .05$. 사후분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점에서 자기애 웅대성 집단과 자기애 취약성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웅대성 요인에서는 자기애 웅대성 집단이 자기애 취약성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취약성 요인에서는 자기애 취약성 집단이 자기애 웅대성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애너그램 과제 효과 확인

종속 변인들에 대한 자기애 웅대성 집단과

표 3.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집단 별 PNI 구분

변인	자기애 웅대성 집단 (n = 16)	자기애 취약성 집단 (n = 15)	통제 집단 (n = 17)
	M(SD)	M(SD)	M(SD)
연령	20.69(1.70)	20.67(1.68)	21.41(1.70)
PNI			
총점	92.5(10.93)	100.33(9.15)	31.94(12.06)
웅대성 요인	49.94(4.57)	37.87(5.19)	17(7.49)
취약성 요인	42.56(9.49)	62.47(15.00)	14.94(10.34)

주. PNI =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자기애 취약성 집단, 통제 집단의 측정 시기 별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집단과 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지 검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 유도된 상황에 따른 자기애 웅대성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정서 경험을 비교하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가자 간 변인은 집단(자기애 웅대성 집단, 자기애 취약성 집단, 통제 집단), 참가자 내 변인은 시기(사전, 사후)로 설정하였다. 기쁨, 성취감, 수치심, 분노 각각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

하였다.

분석 결과, 기쁨에서 시기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1, 45) = 8.64, p < .05$. 따라서, 사전 시기보다 사후 시기에 기쁨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수치심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집단과 시기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2, 45) = .97, ns$. 그러나 시기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1, 45) = 28.04, p < .05$. 따라서, 집단과 상관없이 사

표 4. 집단과 시기에 따른 종속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변인	자기애 웅대성 집단 (n = 16)		자기애 취약성 집단 (n = 15)		통제 집단 (n = 17)		반복측정 변량분석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시기	집단	시기×집단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F (partial η^2)	F (partial η^2)	F (partial η^2)
VAS									
기쁨	187.56 (50.55)	152.81 (62.05)	151.33 (43.42)	131.27 (57.15)	168.00 (70.99)	160.00 (42.26)	8.64* (.16)	1.44 (.06)	1.22 (.05)
성취감	85.56 (50.21)	71.44 (55.58)	75.13 (31.49)	68.07 (46.09)	72.88 (50.21)	81.35 (48.61)	0.45 (.01)	0.11 (.01)	1.17 (.05)
수치심	46.00 (56.25)	92.75 (79.69)	56.20 (53.21)	116.13 (74.81)	11.47 (16.46)	42.06 (43.77)	28.04* (.38)	6.36* (.22)	0.97 (.04)
분노	32.06 (40.51)	58.13 (60.89)	25.80 (33.93)	71.13 (59.73)	14.06 (32.70)	7.18 (18.78)	11.88* (.21)	5.10* (.18)	6.03* (.21)
RSES									
	38.00 (5.65)	37.19 (6.59)	31.27 (6.84)	32.80 (6.86)	40.06 (6.81)	41.06 (6.71)	0.73 (.02)	7.77* (.26)	1.11 (.05)
주도성									
IAT	0.52 (0.38)	0.82 (0.31)	0.85 (0.45)	0.73 (0.38)	0.89 (0.49)	0.82 (0.32)	0.28 (.01)	1.40 (.06)	3.95* (.15)
친화성									
IAT	0.47 (0.39)	0.63 (0.47)	0.76 (0.36)	0.47 (0.52)	0.80 (0.41)	0.74 (0.44)	0.72 (.02)	1.67 (.07)	3.25* (.13)

주. PNI =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VAS = Visual Analogue Scale, RSES = Rosenberg 자존감 척도, IAT = Implicit Association Task

* $p < .05$

전 시기보다 사후 시기에 수치심 평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치심에서 집단의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F(2, 45) = 6.36, p < .05$. 사후 분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시기와 상관없이 자기에 취약성 집단이 경험한 수치심이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노에서는 집단과 시기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F(2, 45) = 6.03, p < .05$. 분노에서 나타난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시기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에 웅대성 집단과 자기에 취약성 집단 모두 사전 시기에 비해 사후 시기에 분노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F(1, 15) = 5.73, p < .05$, $F(1, 14) = 11.51, p < .05$. 통제 집단에서는 시기에 따른 분노 수준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F(1, 16) = 0.72, ns$. 집단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전 시기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2, 45) = 1.08, ns$. 사후 시기에서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45) = 7.54, p < .05$. 사후 분석으로 Scheffé 검증 결과, 사후 시기에 자기에 웅대성 집단과 자기에 취약성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분노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에서 시기의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 45) = 11.88, p < .05$. 사후 시기에 분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의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F(2, 45) = 5.10, p < .05$. 사후 분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기에 웅대성 집단과 자기에 취약성 집단 모두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 경험 전후의 명시적 자존감 비교

자기에 웅대성 집단과 자기에 취약성 집단, 그리고 통제 집단에서 실패 경험에 따른 명시적 자존감의 변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반복 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가자간 변인은 집단(자기에 웅대성 집단, 자기에 취약성 집단, 통제 집단)으로, 참가자 내 변인은 시기(사전, 사후)로 설정하였다. 명시적 자존감에 대한 3x2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명시적 자존감에 대한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45) = 7.77, p < .05$. 사후 분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기에 취약성 집단의 명시적 자존감이 통제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기와 상관없이 자기에 취약성 집단에서 명시적 자존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의 주효과와 시기와 집단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각각 $F(1, 45) = 0.73, ns$, $F(2, 45) = 1.11, ns$.

집단에 따른 명시적 자존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각 시기(사전, 사후) 별로 일원배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전 시기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45) = 7.94, p < .05$. 사후분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기에 취약성 집단의 명시적 자존감 수준이 자기에 웅대성 집단과 통제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시기에 대한 일원 변량분석 결과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45) = 6.23, p < .05$.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밝히기 위해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기에 취약성 집단의 명시적 자존감 수준이 통제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에 취약성 집단의 명시적 자

존감 수준이 가장 낮을 것이라는 본 연구 가설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로 보인다.

실패 경험 전후의 암묵적 자존감 비교

자기애 웅대성 집단과 자기애 취약성 집단, 통제 집단에서 실패 경험에 따른 암묵적 자존감의 변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주도성과 친화성 특성으로 구성된 주도성 IAT와 친화성 IAT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가자간 변인은 집단(자기애 웅대성 집단, 자기애 취약성 집단, 통제 집단)으로, 참가자 내 변인은 시기(사전, 사후)로 설정하였다.

주도성 IAT에서의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집단과 시기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 45) = 3.95, p < .05$. 시기의 주효과와 집단의 주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각각, $F(1, 45) = 0.28, ns$, $F(2, 45) = 1.40, ns$. 친화성 IAT에서도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 45) = 3.25, p < .05$. 시기의 주효과와 집단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F(1, 45) = 0.72, ns$, $F(2, 45) = 1.67, ns$.

주도성 IAT에서 나타난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시기에 따른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애 웅대성 집단에서 사전 시기에 비해 사후 시기에 암묵적 자존감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5) = 9.74, p < .05$. 반면, 자기애 취약성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사전 시기에 비해 사후 시기에 암묵적 자존감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각각, $F(1, 14) = 0.63, ns$, $F(1, 16) = 0.58, ns$. 집단에 따른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사전 시기에 집단 간 암묵적 자존감 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 45) = 3.36, p < .05$. 그러나 사후 분석을 위해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친화성 IAT에서 나타난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시기에 따른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애 취약성 집단에서 사전 시기에 비해 사후 시기에 암묵적 자존감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F(1, 14) = 5.31, p < .05$. 그러나 자기애 웅대성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각 $F(1, 15) = 1.41, ns$, $F(1, 16) = 0.29, ns$. 집단에 따른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사전 시기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45) = 3.52, p < .05$. 그러나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인 자기애 웅대성 집단과 자기애 취약성 집단에서의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을 살펴 보았다. 병리적 자기애에서 암묵적 자존감 연구 결과가 혼재하는 한 가지 원인이 주도성과 친화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각 특성의 구성개념으로만 이루어진 두 개의 IAT를 제작하였다. 자기애 웅대성이 높은 사람은 실패 경험을 하게 되면 주도성과 관련된 암묵적 자존감 수준을 조절하여 웅대한 자기상을 유지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친화성 특징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반면 자기애 취약성이 높은 사람은 실패 경험을 하게 되면 주도성과 친화성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IAT에서 암묵적 자존감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해결 불가능한 과제를 제시하여 실험실 상황에서 실패 경험을 유도한 뒤 명시적 및 암묵적 자존감을 반복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패 경험이 적절히 유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쁨, 성취감, 수치심, 분노 각각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참가자 간 변인은 집단(자기에 웅대성 집단, 자기에 취약성 집단, 통제 집단), 참가자 내 변인은 시기(사전, 사후)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쁨, 수치심, 분노에서 시기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가자는 일반적으로 애너그램을 실시한 후에 기쁨이 감소하고 수치심과 분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의 경우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여 집단에 따라 분노가 변화하는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애너그램 과제가 실패 경험을 적절히 유도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성취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통제 집단에서 실패 경험 이후 성취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자기에 웅대성 집단과 자기에 취약성 집단은 성취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패 상황에 따른 부정적인 정서 경험은 병리적 자기에 집단이 이상적이고 웅대한 자기상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경향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Block과 Block(1980)에 따르면 건강한 개인은 자아 탄력성이 있어 스트레스나 좌절 경험에도 정서나 행동상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패 경험 후 통제 집단에서 성취감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점은 이와 연관 있어 보인다. 그

러나 병리적 자기에 집단에 있어 실패 경험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상적이고 완벽한 자기상을 위협하는 자극이기 때문에 실패를 견디지 못한 채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제의 일부분을 성공하여 약간의 성취감을 경험한 통제 집단과는 다르게, 자기에 웅대성 집단은 일부 과제에서 성공했음지라도 전부 다 성공하지는 못했다는 경험이 이상적인 자기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에 성향이 강할수록 실패에 대한 반응으로 더 큰 분노를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한다(Rhodewalt & Morf, 1998).

한편, 병리적 자기에 속하는 두 집단 모두 분노감이 상승하였음지라도 자기에 취약성 집단이 웅대성 집단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분노감이 상승하였다. 양진원과 권석만(2016)은 자기에 웅대성과 취약성 모두 분노와 관련이 있으며 웅대성이 우세한 사람은 긍정 정서, 분노를 경험하기 쉬운 반면, 취약성이 우세한 사람은 우울, 부정 정서, 분노를 더 쉽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았다. 홍초롱과 권석만(2016)에서는 자기에 웅대성 집단은 부정적인 사건에 직면하더라도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자기에 취약성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이고 취약한 자기상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회피적이고 철수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강한 분노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자기에 취약성이 수치심에 대한 의식적 경험과 관련되며 자기에 취약성이 무기력감과 공허함, 수치심, 이상적인 자기상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철수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Pincus et al., 2009). 본 연구 결과에서 두 집단 모두 분노 경험이 증가하였을지라도 그 변화의 폭이 자기에 취약성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난 점은 이러한 연구 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며, 자기에 취약성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욱 분노 경험에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실패 경험에 따른 명시적 자존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에 취약성 집단의 명시적 자존감 수준이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기에 따른 일원 변량분석 결과, 사전 시기에 자기에 웅대성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자기에 취약성 집단의 명시적 자존감 수준이 가장 낮았고 사후 시기에서는 자기에 취약성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자기에 취약성이 높은 사람은 무력감과 수치심을 경험하면서 의식적인 수준에서의 자존감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과 부합하고(Akhtar, 2003) 선행 연구와도 일치한다(Campbell & Miler, 2011; Pincus et al., 2009; Trit et al., 2010).

한편, 자기에 웅대성 집단에서는 명시적 자존감 수준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에 웅대성 집단의 자존감 변화는 무의식적 자기방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을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Brown & Brunell, 2017; Pincus & Lukowitsky, 2010). 즉, 자기에 웅대성 집단이 핵심 자기 동기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기 방어 과정으로써 자존감이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암묵적 자존감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실패 경험에 따른 주도적 특성에서의 암묵적 자존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주도성 IAT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과 시기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에 웅대성 집단에서 사전 시기에 비해 사후 시기에 암묵적 자존감 수준이 증가한 반면, 통제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핵심 가설에 부합하며, 자기에 주도성 친화성 모델을 일부 지지하며 Pincus와 Lukowitsky(2010)가 주장한 ‘웅대하고 취약한 자기로 이끄는 방어적 자기조절 전략’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자기에 웅대성 집단이 자기에적 손상을 입으면 웅대한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존감 수준을 조절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Westen(1990)에 따르면 병리적 자기애의 핵심적인 특징이 자존감 수준이 아닌 자존감 안정성이며, 실패 경험에 따라 자존감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그와 부합하는 결과로 여겨진다.

한편, 본 연구의 가설과 달리, 자기에 취약성 집단은 실패 경험 이후, 주도성 IAT에서 유의한 수준의 자존감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Gebauer 등(2012)의 자기에 취약성 집단이 주도성 및 친화성 특성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변인 대한 연구는 드물어서 실제로 자기에 취약성 집단에서 주도적인 측면과 관련된 동기를 가진 것은 아닌지 반복 검증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요약하면, 병리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자존감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에 웅대성 집단은 이상적인 자기 개념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조

절 전략으로 자존감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불안정한 반면(Zeigler-Hill et al., 2010), 자기에 취약성 집단은 실패 경험을 하게 되면 내적으로는 좌절하고 수치감을 경험하면서 외부환경으로부터 철수하는 특징으로 인해 자존감이 불안정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기에 취약성 집단은 VAS 결과에서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수치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패 경험 후에도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점은 이를 반영하는 결과로 추론된다.

넷째, Gebauer와 Sedikides(2018)는 친화적인 영역에 대한 과도하게 팽창된 자기 지식과 자기 고양을 통해 전반적인 자기 평가를 유지하는 친화적인 자기에 집단이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고자 친화적인 단어로 구성된 IAT를 실시하였다.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집단과 시기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에 취약성 집단에서 사전 시기에 비해 사후 시기에 암묵적 자존감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자기에 취약성 집단이 이상적인 자기상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철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치심에 대한 의식적 경험과 관련 있다는 Pincus 등(2009)의 주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사전 시기에 자기에 취약성 집단이 자기에 웅대성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암묵적 자존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의 가장된 가설(Modest Mask Hypothesis)에 따르면, 자기에 취약성 집단은 낮은 수준의 명시적 자존감을 보이지만, 내면에는 웅대한 환상을 숨기고 있다(Brown & Brunell, 2017). 즉, 자기에 취약성 집단은 자기에 대한 이상적인 환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내면 깊숙한

곳에서 팽창되고 과장된 자기 관점을 지니는 것이다. 명시적 자존감 수준은 낮더라도 사전 시기의 암묵적 자존감 수준은 자기에 웅대성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이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친화성 IAT에서 자기에 웅대성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 통제 집단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Fatfouta과 Schröder-Abé(2018a)는 친화적 자기에 집단의 핵심 자기 동기 역시, 주도적 차원이며 친화성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암묵적 차원에서의 가치를 반영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혹은, 자기에 웅대성 집단의 성격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자기 동기가 주도적인 차원에 있음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친화성 IAT에서 관찰된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통제 집단과 달리 자기에 웅대성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사전 측정치에 비해 실패 경험 유도 후 측정된 친화성 IAT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Gebauer, Leary와 Neberich(2012)가 주장한 친화적인 측면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즉, 자기에 웅대성 집단은 주도적인 특징을 핵심 자기 동기로 삼고 있지만, 핵심적인 자기 동기와 이를 충족하기 위해 주도적인 방략과 친화적인 방략을 쓰는 집단으로 나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친화적 특성으로 구성된 암묵적 자존감이 상승한 경향은 친화적 자기에 집단의 존재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Gebauer 등(2012)의 주도성-친화성 모델을 일

부 지지하는 결과로 여겨진다.

자기애 취약성 집단에서는 친화성 IAT가 사전 측정치와 비교하여 사후 측정치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 취약성 집단에서의 자존감이 불안정함을 보여준다. 이상적인 자기상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철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치심에 대한 의식적 경험과 관련 있다는 Pincus 등(2009)의 주장을 반영하는 결과이며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통제 집단에서는 주도성과 친화성 IAT 모두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은 주도성과 친화성 개념을 통해 병리적 자기애의 기저에 깔린 핵심 동기와 자기조절 전략을 상세히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외에서는 지난 20여 년간에 걸쳐 자기애 집단과 주도성 및 친화성에 관한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Campbell et al., 2006), 최근에는 주도적인 특성만이 아니라 친화적인 특성을 함께 나타내는 새로운 자기애 집단이 제안되면서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이다(Nehrlich, Gebauer, Sedikides, & Schoel, 2019).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기애적 특징과 주도성 및 친화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매우 드물며, 주도성과 친화성 개념 자체에 대한 접근조차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김윤영 등,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주도성 및 친화성의 개념을 소개하고 자기애적 특징에서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탐색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가 있다.

둘째, 특정 시점에서의 자존감 수준이 아니라 외부 상황에 따른 자존감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기애적 특

징과 자존감에 대한 방대한 연구가 있지만, 명시적 및 암묵적 자존감 수준을 다룬 연구 결과는 혼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존감 자체보다도 자존감 불안정성 개념을 강조한다(Westen, 1990). 즉, 자기애적 성격 특성을 지닌 사람은 성공과 실패에 관한 자기본위 편향을 보이며(Rhodewalt & Morf, 1998),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외부 귀인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높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쉽게 분노하는 한편,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조절 전략으로써 자존감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사건을 조작하여 실패 경험에 따른 자기조절 전략으로서의 자존감을 확인하였다. 병리적 자기애 집단의 자존감이 불안정함을 확인함과 더불어 하위 집단에 따라 암묵적 자존감의 변화 방향성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자기애 웅대성 특성을 지닌 사람이 실패를 받아들이거나 그 원인을 분석하는 통찰력과 자기 인식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Edward와 Bond(2012)는 자기애에서 관찰되는 형편없는 수준의 자기개념 명확성이 적대적 귀인 편향의 강한 예측 인자라고 보았으며 사회적 상황을 공격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 경향과도 연관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자기 인식 부족이 대인관계 어려움 등을 포함한 자기애적 병리의 핵심적인 문제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자기애 취약성 집단에서는 본래 높은 수준의 암묵적 자존감 수준이 실패 경험에 의해 감소하고 부정 정서 경험에 압도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형 간 실패 경험에 대처하는 기제가 다름을 시사한다.

셋째, 병리적 자기애 집단이 실패 경험을 다루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성격적 변인이라

치료적 접근이 까다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자기에 집단에 대한 치료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자기애적 성격 특성을 지닌 이들의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한 가지 원인은 이들 집단이 매우 자아동조적이라는 것이다 (Kernberg, 1989). 그러므로 그 기저를 밝힐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취약한 자기 개념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자기에 집단에서의 내면적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어떤 측면에 대한 응대성을 지니는지 살펴보았다. 현재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실패 경험을 수용하지 못하고 작은 좌절에도 자기애적 손상을 경험하는 취약성을 치료자가 공감해주는 한편, 자신의 과대성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가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자기 개념 명확성을 증진하는 것이 유용한 기법일 것으로 보인다(민성길, 2015).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 구분 방법은 확립된 방법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에 응대성과 자기에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별개의 집단을 구성하고자 PNI 척도의 하위 요인인 응대성 요인과 취약성 요인을 활용하였고 표준화된 점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선정했다. 일반적으로 표준화 점수는 1.5SD를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1SD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1.5SD를 기준으로 할 경우 너무 적은 표본 수로 인해 집단 간 특성보다 집단 내 특성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우려되는 바,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엄격한 표준편차 기준점을 적용하여 집단을 선정한 후,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도성과 친화성을 측

정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토대로 직접 단어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주도성과 친화성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 도구나 구성개념 등이 국내에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주도성과 친화성 평정 척도의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해서 IAT 단어를 구성한 뒤 반복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친화적 자기에 집단에 관해 기술하였으나, 별도의 집단 구분을 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에 주도성과 친화성에 따른 자기에 집단 연구가 없으며, 주도성과 친화성 각각에 따른 연구도 부재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두 특성에 따른 자기에 응대성 집단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친화성 자기에 척도(Communal Narcissism Inventory: CNI)와 같은 표준화된 척도를 번안 및 타당화하여 친화성 자기에 집단을 구성한 후, 이들의 구체적인 자기조절 과정 및 주도적 자기에와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아, 최훈석 (2014). 심리적 위협 상황에서 자존감 안정성과 조절초점의 부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145-1168.
- 김송이, 엄진섭, 노은여, 유성은 (2013). 개별정서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63-89.
- 김윤영, 이예은, 주민주, 박유빈, 박선웅 (2016). 독자성과 융화성: 인간 실존의 근원적인 두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283-308.
- 민성길 (2009). 제 5 판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

- 조각.
- 박승진, 최혜라, 이훈진 (2011). 성취 지향적,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자의 암묵적, 명시적 자존감.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1), 305-323.
- 양진원, 권석만 (2016). 병리적 자기애 성향자의 응대성과 취약성에 따른 정서적 특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1), 215-242.
- 원호택, 이훈진 (1995). 편집성 척도(Paranoia Scale)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83-94.
- 최정인, 이훈진, 이준득 (2012). 평가적 피드백과 생활사건에 따른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자존감 변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2), 631-639.
- 홍초롱, 권석만 (2016).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2*(2), 145-16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 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Vol. 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khtar, S. (2003). *New clinical realms: Pushing the envelope of theory and technique*. Lanham, MD: Jason Aronson
-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Boston, MA: Beacon Press.
- Besser, A., & Priel, B. (2010). Grandiose narcissism versus vulnerable narcissism in threatening situations: Emotional reactions to achievement failure and interpersonal reje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9*(8), 874-902.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1), 5.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 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A. Collins(Ed.), *The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Vol. 13, pp. 39-10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osson, J. K., Lakey, C. E., Campbell, W. K., Zeigler Hill, V., Jordan, C. H., & Kernis, M. H. (2008). Untangling the links between narcissism and self estee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3), 1415-1439.
- Brown, A. A., & Brunell, A. B. (2017). The “modest mask”? An investigation of vulnerable narcissists’ implicit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9*, 160-167.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19-229.
- Cain, N. M., Pincus, A. L., & Ansell, E. B. (2008). Narcissism at the crossroads: Phenotypic description of pathological narcissism across clinical theory, social/personality psychology, and psychiatric diagno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638-656.
- Campbell, W.K., Bosson, J. K., Goheen, T. W., Lakey, C. E., & Kernis, M. H. (2007). Do

- narcissists dislike themselves “deep down inside?”. *Psychological Science*, 18(3), 227-229.
- Campbell, W. K., Brunell, A. B., & Finkel, E. J. (2006). Narcissism, Interpersonal Self-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s: An Agency Model Approach. In E. J. Finkel & K. D. Vohs (Eds.), *Self and Relationships: Connecting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Processes*. New York: Guilford.
- Campbell, W. K., & Green, J. D. (2008).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self-regulation. In J. V. Wood, A. Tesser, & J. G. Holmes (Eds.), *The self and social relationships* (pp. 73-94).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Campbell W.K., Miller J.D. (2011). *Handbook of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oretical Approaches, Empirical Findings, and Treatments*. Hoboken, NJ: Wiley.
- Campbell, W. K., Rudich, E. A., & Sedikides, C. (2002). Narcissism, self-esteem, and the positivity of self-views: Two portraits of self-lo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3), 358-368.
- Dickinson, K. A., & Pincus, A. L. (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3), 188-207.
- Dimaggio, G., Semerari, A., Falcone, M., Nicolò, G., Carcione, A., & Procacci, M. (2002). Metacognition, states of mind, cognitive biases, and interpersonal cycles: Proposal for an integrated narcissism model.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12(4), 421.
- Edwards, R., & Bond, A. J. (2012). Narcissism, self-concept clarity and aggressive cognitive bias amongst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23(5-6), 620-634.
- Farwell, L., & Wohlwend-Lloyd, R. (1998). Narcissistic processes: Optimistic expectations, favorable self evaluations, and self enhancing at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66(1), 65-83.
- Fatfouta, R., & Schröder-Abé, M. (2018a). A wolf in sheep's clothing? Communal narcissism and positive implicit self-views in the communal domai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76, 17-21.
- Fatfouta, R., & Schröder-Abé, M. (2018b). Agentic to the core? Facets of narcissism and positive implicit self-views in the agentic domai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74, 78-82.
- Freud, S. (1955).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England: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37)
- Gebauer, J. E., Leary, M. R., & Neberich, W. (2012). Unfortunate first names: Effects of name-based relational devaluation and interpersonal neglect.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3(5), 590-596.
- Gebauer, J. E., Paulhus, D. L., & Neberich, W. (2013). Big two personality and religiosity across cultures: Communals as religious conformists and agentic as religious contrarian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4(1), 21-30.
- Gebauer, J. E., & Sedikides, C. (2018). Communal narcissism: Theoretical and empirical support. In A. D. Hermann, A. B. Brunell, & J. D. Foster (Eds.), *The Handbook of trait narcissism: Key advances, research methods, and controversies*

- (pp. 69-77). New York, NY: Springer.
- Gebauer, J. E., Sedikides, C., Verplanken, B., & Maio, G. R. (2012). Communal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5), 854.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
-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197.
- Grijalva, E., & Zhang, L. (2016). Narcissism and self-insight: A review and meta-analysis of narcissists' self-enhancement tendenc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2*(1), 3-24.
- Kernberg, O. F. (1986). Institutional problems of psychoanalytic educ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34*(4), 799-834.
- Kernberg, O. F. (1989).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d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antisocial behavior. *Psychiatric Clinics, 12*(3), 553-570.
- Kernis, M. H., Lakey, C. E., & Heppner, W. L. (2008). Secure versus fragile high self esteem as a predictor of verbal defensiveness: Converging findings across three different markers. *Journal of Personality, 76*(3), 477-512.
- Kohut, H. (1966). Forms and transformations of narcissism.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14*(2), 243-272.
- Lupien, S. P., Seery, M. D., & Almonte, J. L. (2010). Discrepant and congruent high self-esteem: Behavioral self-handicapping as a preemptive defensive strateg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6), 1105-1108.
- Miller, J. D., & Campbell, W. K. (2008). Comparing clinical and social personality conceptualization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76*(3), 449-476.
- Morf, C. C., & Rhodewalt, F. (2001). Unraveling the paradoxes of narcissism: A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2*(4), 177-196.
- Nehrlich, A. D., Gebauer, J. E., Sedikides, C., & Schoel, C. (2019). Agentic narcissism, communal narcissism, and prosoci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7*(1), 142.
- Pincus, A. L., & Lukowitsky, M. R. (2010). Pathological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421-446.
- Pincus, A. L., Ansell, E. B., Pimentel, C. A., Cain, N. M., Wright, A. G., & Levy, K. N. (2009). Initial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21*(3), 365.
- Psychology Software Tools, Inc. (2012). E-Prime 2.0. Available.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 Rhodewalt, F., Madrian, J. C., & Cheney, S.

- (1998). Narcissism, self-knowledge organization, and emotional reactivity: The effect of daily experiences on self-esteem and affe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1), 75-87.
- Rhodewalt, F., & Morf, C. C. (1998). On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72-685.
- Ronningstam, E. (2005). *Identifying and understanding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Ronningstam, E. (2010).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 current review. *Current Psychiatry Reports*, 12(1), 68-75.
-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 Rudman, L. A., Greenwald, A. G., & McGhee, D. E. (2001). Implicit self-concept and evaluative implicit gender stereotypes: Self and ingroup share desirable trai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9), 1164-1178.
- Salmivalli, C. (2001). Feeling good about oneself, being bad to others? Remarks on self-esteem, hostility, and aggressive behavior.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6(4), 375-393.
- Tritt, S. M., Ryder, A. G., Ring, A. J., & Pincus, A. L. (2010). Pathological narcissism and the depressive temperame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2, 280-284.
- Weiss, B., & Miller, J. D. (2018). Distinguishing Between Grandiose Narcissism, Vulnerable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A.D. Hermann, A.B. Brunnel & J.D. Foster (Eds.), *Handbook of Trait Narcissism: Key Advances, Research Methods, and Controversies* (pp. 3-13). Springer: Cham.
- Westen, D. (1990). The Relations Among Narcissism, Egocentrism, Self-Concept, and Self-Esteem: Experimental, Clin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Psychoanalysis and Contemporary Thought*, 13(2), 183-239.
- Zeigler-Hill, V., Myers, E. M., & Clark, C. B. (2010). Narcissism and self-esteem reactivity: The role of negative achievement even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2), 285-292.

원고접수일 : 2022. 01. 20.

게재확정일 : 2022. 03. 28.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in Pathological Narcissism related to Agency and Communion*

Yugyeom Jeon¹⁾

Jongmin Lim²⁾

Mun-Seon Chang^{3†}

¹⁾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

²⁾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h.D. Cand

³⁾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ow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changes in the experience of failure in the narcissistic grandiosity group and the narcissistic vulnerability group, which are the phenotypes of pathological narcissism.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agency-communion model, people with high narcissistic grandiosity were divided into agency narcissism and communion narcissism according to the means to maintain their ideal self-image; the relationship between pathological narcissism and agency and communion was conducted. After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 was administered to 303 university students, the narcissistic grandiosity group ($n = 16$), narcissistic vulnerability group ($n = 15$), and control group ($n = 17$) were selected. To measure implicit self-esteem, an implicit association test (Agency IAT, Communion IAT) consisting of each word of agency and communion was produced, and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was used to measure explicit self-esteem. After RSES and IAT, unsolvable anagram tasks were presented to induce failure experiences, and the degree of change in self-esteem was examined by repeatedly measuring RSES and IA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direction of implicit self-esteem change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phenotype of pathological narcissism. In particular, the narcissistic grandiosity group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agency IAT, whereas the narcissistic vulnerability group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communion IAT. It shows that the self-esteem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tic group is unstable, while different phenotypes show different mechanisms for coping with failure experiences. This suggests that pathological narcissism is associated with agency and communion.

Key words : Agency, Communion, Pathological Narcissism, Implicit self-esteem, Explicit self-esteem

* This paper is based on a part of the master's thesis of the first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 Mun-Seon Chang /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Korea / E-mail : moonsun@knu.ac.kr